

2020
동물자유연대
연차보고서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ANNUAL REPORT 2020

동물 자유 연대



2020
동물자유연대
연차보고서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ANNUAL REPORT 2020

동물 자유 연대



고통 받는 동물에게
여러분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2020
동물자유연대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1년 06월 10일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홈페이지 www.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뉴스레터 구독신청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최신 소식과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감사인사말	04
왜 동물자유연대에 후원해야 하나요?	06
숫자로 보는 동물자유연대 2020	08
사업성과	11
- 동물 구조와 학대 대응	
- 온센터	
- 나눔사업	
- 정책과 입법	
- 반려동물	
- 농장동물	
- 야생·전시동물	
재정보고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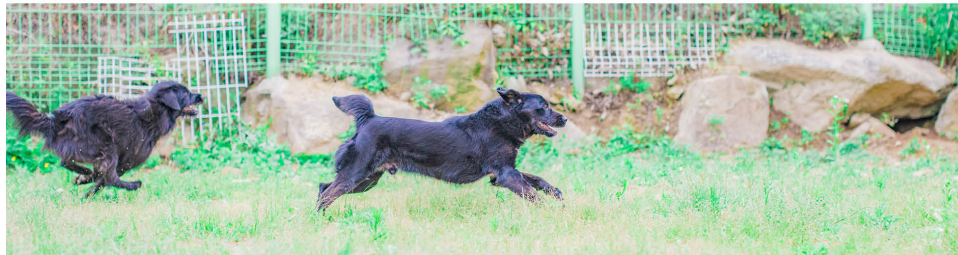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우리 동물자유연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아봅니다. 작년부터 국내외 곳곳이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희망보단 암담함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터인데, 언제나 묵묵히 동물을 위한 참여의 길에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과 도움주시는 많은 분들께 올해는 더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움직임에 제약이 많아 연초 기획한 활동들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 대부분은 현장을 뛰어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상황이라, 매일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한 활동가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악재에도 동물에게 닥친 위기를 판단하고 긴급히 대처해왔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반려동물들에게 닥칠 곤란을 염려했습니다. 저희는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나 입원 치료 중인 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관련 대책으로 반려동물 호텔링과 사료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 빠른 실행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영향을 주어 확진자 반려동물 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동물이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이유와 추진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웅담 채취용 사육곰들을 위한 생추어리 건립 예산 확보까지 지난해 이룬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인식이 흐트러져 생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적절한 거리를 지켜야 하고, 동물은 자연 생태에 따라 살아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인간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야생동물의 바이러스일수록 치명적이라 경고는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계가 무너지는 일은 잦았고, 결국 혹독한 코로나19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이 그들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동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에 맞서는 일, 그 근본적인 변화와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올해도 변함없이 행동하겠습니다.

아울러, 허락된 지면을 빌려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남양주 온센터에 이어 파주에도 건립합니다. 작년에 토지를 매입했고, 지난 4월 28일 착공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양주 1온센터는 '개' 돌봄으로, 파주 2센터는 '고양이' 돌봄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생태적 특성이 다른 개와 고양이를 같이 돌보면서 고양이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개짓음이 고양이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인 점을 반영해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종에 특화된 복지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주 2온센터는 넓은 잔디 운동장이 특징입니다. 산책을 즐기는 고양이들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매년 '입양동물의 날' 행사도 안정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밖에 카페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장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관련 자료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파주 온센터가 무사히, 탄탄히 완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동물자유연대에 후원해야 하나요?

동물자유연대 목표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이 마땅한 대우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에게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참된 가치를 이어주고, 동물들이 제 삶을 누리는 사회, 이 목표를 위해 동물자유연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동물단체로
회원수 최다

2. 반려, 농장, 전시,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을 위해 폭넓게 활동

3. 동물 구조 및 입양에
특화된 전문팀 운영

국내 최초 반려동물
복지시설을 설립해
구조동물 보호 관리

4.

매월 각 후원자에게
후원 내역을 공개

5.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공증

6.

숫자로 보는 동물자유연대 2020



구조동물

106 마리



남양주 온센터 보호동물

352 마리



입양사업

157 마리



결연후원자 월 평균

3,074 명



사육곰 구조

22 마리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포스코 건설 협업)

16 개



학대 제보 상담

4,372 건



위기동물 구조지원

55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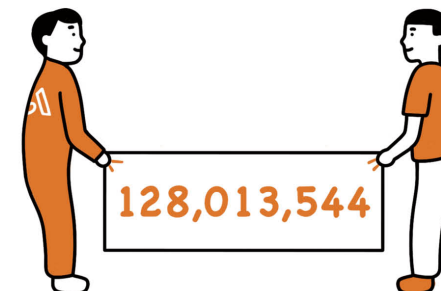
동물 학대 대응

109 건



시민 구조 지원

229 마리



시민 구조 지원 금액

128,013,544 원

동물자유연대는

대한민국 동물운동 역사에서

다양한 최초를 만들어냈고,

항상 최고의 결과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사업성과

동물구조와 학대 대응

신속한 대응으로 동물 피해를 줄이고
학대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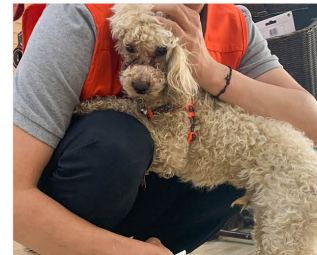


구조와 학대 대응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 유형 또한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학대 제보 상담과 신속한 학대 대응으로 위기 동물의 피해를 줄이고 해당 학대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활동합니다.

구조와 학대 대응 사례 | 총 109건

- 관리 부실로 동물들을 폐사시킨 고양이 불법번식장 대응 및 피학대동물 구조
- 고무줄로 개의 주둥이를 묶어 수개월 방치한 학대자 고발 및 피학대동물 구조
- 반려견 2마리를 묶음으로 폭행한 학대자 고발 및 피학대동물 구조
- 수개월 간 반려견을 방치한 성동구 개 방치 및 아사 사건 대응 및 피학대동물 구조
- 재개발 지역 보상 문제로 뜰에 개를 사육하여 방치한 학대자 대응 및 피학대동물 구조
- 화기로 길고양이에게 전신 화상을 입힌 학대자 고발 및 피학대동물 구조
- 차에 강아지를 묶고 도로를 주행한 학대자 고발
- 반려견을 이용하여 길고양이를 죽인 학대자 고발
- 큰 대검으로 멧돼지를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을 유포한 학대자 고발
- 도봉구 백구 폭행 사건 대응 및 구조





대형견들의 해외 입양

동물자유연대가 자랑할만한 업적은 해외 입양률이 높다는 것. 입양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동물의 관리까지 확인한다는 점 또한 주요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34마리의 중대형견들이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령동물을 위한 집중 케어

온센터 노령동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해 별도의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질환 및 노령, 장애로 입양가지 못하는 동물들의 남은 생이 덜 고단하도록 세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위탁 동물 복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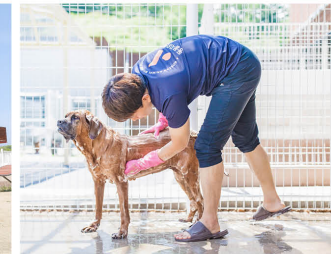
온센터 내 보호 동물이 많아 세 군데 위탁처에 맡겨 놓았으나, 이들의 집중관리를 위해 두 군데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방문해 위탁동물의 생활환경을 확인합니다.

사설보호소 지원

애린원, 삼송, 350마리 행복한 보금자리 등 7곳의 사설보호소에 사료 3.2톤과 간식, 이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픈 동물이 많은 애린원에는 온센터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29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온센터 3,4관 건립

새롭게 건립된 4관에 고양이 전용 펜트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높은 밀집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고양이들과 장애 질병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양이들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기구들을 구비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활동가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새롭게 생겨 동물과 사람의 환경이 함께 쾌적해졌습니다.



나눔사업

위기동물 구조에 시민 참여를 확대,
생명 보호에 동참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듭니다



고양이 급식소 보급사업

소재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 보급합니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 급식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포스코와의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사업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활동영역을 동물과 인간의 공생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쓰담쓰담 지원사업

사고와 학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싶으나,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을 돕습니다. 쓰담쓰담 지원사업을 통해 구조와 치료, 입양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20년에는 총 229마리의 동물이 시민구조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쓰담쓰담 지원 사례 | 총 223건

- 식용 위기에 처해 공사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던 유기견 구조
- 재개발 토지 보상이 끝나고 개농장에서 유기된 개 구조
- 다리가 골절된 상태로 주차장 문에 끼어있던 고양이 구조
- 수개월 앞면부에 심한 부상을 입은 고양이 구조
-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아이들에게 괴롭힌 당한 유기견 구조
- 오랜 시간 세 발로 살아온 길고양이 구조



정책과 입법

총선 시기, 각 정당들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동물권 관련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동물권 총선 대응 연대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권 내 단체들과 연대해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할 법안과 정책을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안서를 6개 정당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현장에 구호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회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재해재난으로 인한 동물의 피해 및 불편사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 가이드라인' 작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동물학대사건 판례평석집 발간

동물학대사건 변호사와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사건 판례를 모아 관련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물학대사건 판례평석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판례평석집에는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임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판례를 담아 동물학대를 근절함과 동시에 동물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보고서 발간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쇠고창이를 개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약 150마리의 개들을 도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 전기도살 사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기도살법에 제제를 가하고 식육목적의 도살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 개식용 종식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대응

국정감사에서 이은주(정의당) 의원과 함께 경찰의 부실한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경찰에서는 수사매뉴얼 개정작업을 시작해 2021년 3월, 기존의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대폭 보강해 일선 서에 배포했습니다.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치료비 예산 촉구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6,000만 원의 예산을 치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1,000여 마리 유기·유실 동물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수의학적 처치를 위해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동물보호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개식용 종식 활동

도살 금지 제재를 통해 개식용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방법을 모색하며 개식용 종식의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전국 개도살장 신고 캠페인을 진행해 20여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춘천시의 경우 관내 개도살장 전폐업을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도살장 2곳 폐쇄 완료, 2곳 폐쇄 예정이며, 나머지 2곳 도살장의 폐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

꾸준히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자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 사건의 강력한 처벌 촉구와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대응 방안 매뉴얼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신종펫숍 문제점 공론화

보호소로 위장하여 반려동물 양육포기자에게 거액의 보호비를 요구하면서도 추후 동물 관리는 전무한 신종 펫숍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종 펫숍의 규제 마련을 위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 정책화의 필요성을 모색합니다.

불법 번식장 대응

동물생산업 허가제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지만 불법 번식장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존재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번식장조차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번식장 사육동물의 고통은 더 큼니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고발과 구조 활동을 이어갑니다.

길고양이 지원 확대 및 인식 개선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들과 함께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안전한 이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동물에 대한 지자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0년에는 동네고양이 안내서와 급식소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포스코건설과 협업을 통해 서대문구와 도봉구에 총 14개소의 급식소를 지원했습니다.





기업 케이지프리 선언 촉구

배터리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의 고통을 줄이고자 기업 대상 케이지프리 선언 촉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이지프리 동참 의사를 밝힌 풀무원, 스타벅스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2020년에는 온라인 식품유통 선두 기업 마켓컬리의 케이지프리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마켓컬리는 2021년 1월 케이지프리 전환을 발표했으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차후, 이행 여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시민 케이지프리 소비 전환 캠페인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마트의 20년 5월 기준, 동물복지 계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작은 철창 안에서 평생 고통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국내 약 7,200만 마리 산란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 달걀로의 소비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 금지 캠페인

매년 전 세계 수백만의 농장동물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합니다. 장거리 운송 중에는 먹고 마시고 쉬는, 기본 행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배와 차 안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도 전 세계 동물보호 단체들과 함께 동물 장거리 운송 중단과 개선을 요구하는 'Ban Live Exports'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육곰 생츠토크 예산촉구 활동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육곰 국내 생츠토크 건립을 위해 환경부의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재부 담당자를 만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노위 및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설계비가 2021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22마리 사육곰 생츠토크 이주사업

웅담 채취 목적 사육곰 개체의 복지 증진과 국내 사육곰 생츠토크 건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2마리 사육곰을 외국 생츠토크로 이주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곰들의 복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 농가 폐업에 따른 사업 종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래류 국내 바다쉼터 조성 운동

고래류는 지능이 높고, 서식지에 비해 전시공간이 좁아 대표적인 전시 부적합 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7개 수족관 29개체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래 서식지는 일본, 러시아 등입니다. 이들을 위해 국내에 바다쉼터를 건립하고자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벨루가 생츠토크 이주 지원 및 선언 유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9년, 동물자유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벨루가 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류위원회에 참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남은 벨루가도 바다 방사를 설득 중입니다. 이와 함께 거제씨월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 등에서 발생한 고래류 학대 및 폐사 사건을 공론화해 고래류 사육과 전시, 체형의 문제 제기과 방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보고



2020 수입

동물자유연대가 정부지원금 0%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시민 여러분의 후원이 있어 가능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필요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사람과 동물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금액
공익목적사업수익	4,798,207,849
정기후원회비	3,821,515,886
일반후원금	976,691,963
└ 현금후원	└ 781,684,980
└ 물품후원	└ 195,006,983
이자수익	50,877,486
사업외수익	21,289,738
수익합계	4,870,375,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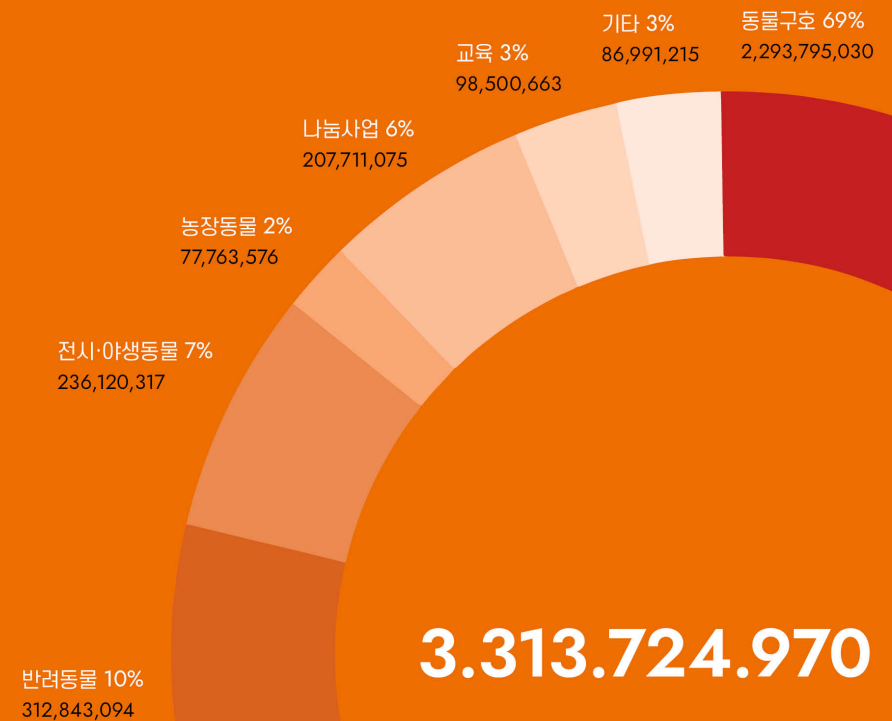
2020 지출

공익목적사업비와 기금적립, 건축비용 등을 모두 합한 총지출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파주 제2온센터 토지 매입비가 적용된 수치입니다. 적합한 부지가 선정되어 토지매입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했고 2021년 현재,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온센터는 고양이전문 보호소로 운영돼 보호 동물들의 복지환경을 높일 계획입니다. 덧붙여 남양주 제1온센터의 경우, 3관 신축공사와 4관 매입에 지출했습니다. 센터 상수도 공사 또한 완료해 평소 활동가들의 물 부족 우려를 해결했습니다.

구분	금액
공익목적사업비용	3,987,672,055
고유목적사업비용	3,313,724,970
일반운영비	242,823,277
모금비용	431,123,808
사업외비용	8,330,447
기금적립	500,000,000
사무실마련적립	500,000,000
자산비용	3,267,713,953
온센터3관공사및4관 매입	820,486,023
온센터상수도공사	75,647,550
서울본부리모델링	99,900,000
파주온센터건축	2,271,680,380
지출합계	7,763,716,455

고유목적사업비용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대표 동물단체로서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고통받는 동물을 위해 노력합니다. 작년에 비해 전사·야생동물 관련한 사업비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지던 사육곰 구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생츄어리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국내사육곰의 5%에 해당하는 22마리를 외국 생츄어리로 이주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